

본회, 제11차 임원·지부장· 직원 연수회 성료

취재 : 박진규 기자

“재벌기업 양돈참여 절대 반대”결의

본회는 지난 5월 17·18일 이틀간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11차 임원·지부장·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인의 대응능력 함양과 임·직원의 봉사자세 확립 및 일체감 조성, 회원 상호간의 협동심과 단결력 고취, 양돈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여 '91년도 협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연수회에는 본회의 임원·지부장·직원 등 170여명이 참석하여 양돈산업의 당면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개회식이어 ▲특별강의 ▲양돈인 친선이밤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91년도 협회 사업 소개

▲모범지부 성공사례 발표 ▲5분 스피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힘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지난 7~8년간 애써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축산법이 지난 3월 그 시행을 앞두고 경제기획원, 재무부등이 앞장서 재벌기업의 양돈업 참여와 사육상한선 상향조정등 우리의 상황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축산원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축산관련 단체를 소집해 영세율의 적용을 강력히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동용 회장은 이어 「최근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수입축산물의 위생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검역소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그 소임을 다할 수 없는 현재 검역소의 직제나 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나 각계에 요구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산업이던간에 정보교환이 없거나 늦는다면 그 산업이 존립하기 힘들므로 본회에서 각 지부에 보내는 공문과 정보를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부장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계속된 연수회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기능과 역할 (수협연수원 정병호 교수)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한국 양돈산업의 정책방향 (농림수산부 이인형 축산경영과장) ▲UR과 육종전략 (고려대 홍기창 교수) ▲UR협상과 우리의 대응책 (단국대 장원석 교수)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 정찬길 교수) 등에 대한 특별강의가 있었다.

이날 정병호 교수는 강의를 통해 「협회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의사를 사회세력화하여 각 개인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집단」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건전한 단체활동을 통해서만이 집단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분출시켜 각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간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형 과장은 「돼지구급 및 안정측면에서 볼때 내년도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94년이후 소·돼지의 가격이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보여져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예상하고 「UR협상이 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품목이 관세를 높여서 수입되지만 차츰 관세가 낮아지므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



▲임직원 연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전동용회장

조했다.

계속된 강의에서 홍기창 교수는 「현재 유전능력은 거의 정점에 다달았으며 앞으로는 산자수증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육종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복당 산자수는 9~11두로 산자수가 증가할수록 두당 생산비가 절감되므로 산자수증가는 경영상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산자수가 높은 중국의 매산돈과의 육종 계획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계속된 강의에서 장원석교수는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수입개방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정책에 끌려 다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정부는 조정무역원칙을 고수하고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거짓말을 하

지 말아야 하며, 전문성과 과학성향상에 노력을 해야 하며 빠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돈인의 대응방안으로 「▲기술과 경영의 개선과 품질의 고도화 ▲양돈인 중심의 계열화 사업 추진 ▲자조금 제도 도입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재활용 노력 ▲생산·유통·가공의 협동화 ▲전 양돈인의 협동으로 이 난국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찬길 교수는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까지 수입을 하게 되면 양돈농가가 받는 피해는 엄청나며, 수입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측면은 소비자 가격하락, 관세수입의 증가, 가격안정측면인데 실제의 경우를 봐서 이러한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쇠고기의 경우 쇠고

기를 수입개방해도 소비자가격은 큰 차이가 없고 정부의 감시소홀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단기적인 돼지고기·쇠고기의 수입보다는 꾸준한 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회 참석자들은 첫날 저녁식사후 7개의 분임조를 편성해 최근 양돈업계의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양돈업 참여와 허가 상한선 철폐 및 상향조정 움직임에 대한 대책 (제1조) ▲돼지고기 수입,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2조) ▲왜 협회가 필요하며, 우리 회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제3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양돈업 생산성 향상 방안 (제4조) ▲자조금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제5조) ▲합리적인 돈육유통구조개선방안 (제6조) ▲중앙회와 지부의 효율적 업무연계방안과 여직원의 역할 (제7조) 등에 대한 집중토의가 있었다.

이날 토의된 내용을 보면

▲제1조: 양돈업은 농민고유의 일차산업으로 재벌기업의 양돈업 참여는 절대불가하며 재벌기업이 양돈업을 하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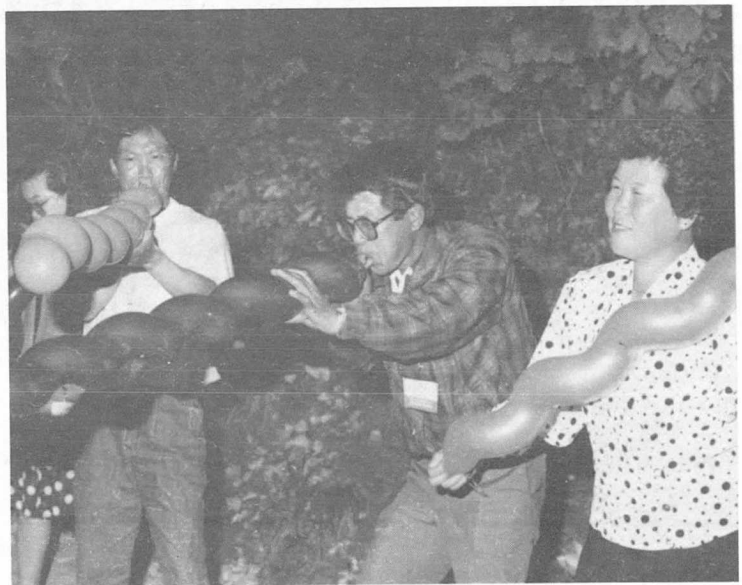
이유는 양돈업자체보다는 비업무용땅에 속셈이 있으므로 재벌기업의 양돈업 참여반대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재벌기업 양돈참여 반대 서명운동
 ○그룹내에서 생산되는 전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국회와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표명을 하기로 했다.

▲제2조: 수입개방은 절대 불가하며 일시적인 대책으로 수입개방을 하게되면 영원한 수입국으로 몰락한다. 그러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생산기반을 구축시켜 준 뒤 점차적인 수입개방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장부지 확보
 ○인력난·폐수문제에

대한 재정지원
 ○육질개선을 통한 경쟁력향상
 ○돈육소비홍보문제
 ○관세, 부가세 영세율 문제
 ○수입 돼지고기의 고율 관세 부과
 ○유통구조 개선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조: 협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정보교환 및 간행물발간
 ○양돈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과제 역할로서 필요하며, 협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소득증대를 위한 개개인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제4조: 정부에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사료,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축사의 신·개축시 재정지원



▲ 양돈인의 밤 행사에서 풍선불기 게임을 하는 참석자들



▲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분임토의 장면

○ 새로운 기술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양돈인들 스스로도
○ 사료·기자재의 공동구매
○ 축산물 공동출하
○ 종돈개량
○ 자동화시설
○ 적정사육두수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5조: 자조금 제도는 거출방법과 사용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거출방법으로는
○ 전국 도축장별로 직원을 두어 두수파악에 의한 방법
○ 찬조에 의한 방법
○ 도축장에 위탁하여 거출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방법으로는 홍보사업, 연구사업, 양돈정책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다.

자조금 제도가 제도화되려면 국회의원선거나 광역회선거때 자조금제도에 대한 약속을 받고 특정인물을 지원해주는 방법과 지방의회에 출마한 의원들이 지방세를 편성할때 제도를 추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6조: 현행 협회를 통한 출하는 서울지부의 수수료가 많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 또한

연동제가 폐지된 후 산지 돼지 값이 내려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많다. 연동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또한 홍보문제로 각·시도별로 모범업소를 선정·수상하여 요리점끼리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수입돈육문제는 검역·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고 육질개선문제가 시급하다 하겠다.

▲제7조: 각 지부에 상근직원이 없는 관계로 여직원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다. 또한 중앙회와의 정보교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회원의 가입·탈퇴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겠다.

이어 분임토의가 끝난후 「양돈인 친선의 밤」 행사에는 장익상 상무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디스코경연과 노래자랑, 풍선게임과 참석자 전원의 「고향의 봄」 합창으로 양돈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다음날 「모범지부 성공사례」에서는 경기도 광주 임원섭지부장이 나와 「광주지부는 돼지고기의 육질개선과 적극적인 유통사업에의 참여로 인근 주민들의 소비촉진을 유발시켜 돈육소비확대에 힘써 왔으며, 타지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돈육소비확대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회식에 앞서 최상백 부회장은 「협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외활동에 필요한 회원들의 과감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명복 부회장은 「대외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요구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양돈업 참여문제, 자조금제도 관철등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연수일정의 마지막으로 연수생을 대표한 대전지부 김의승 지부장의 선창으로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양돈인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제11차 임원·지부장·직원 연수과정을 수료하는 연수생일동은 연수과정중에 쌓은 지식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돈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하고 폐회식을 마쳤다. 